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공연》, 《애국의 심장에 비약의 불을 달아준 최상의 예술》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을 관람한 자강도인민들의 걱정의 분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 전원회의파업관철을 위한 대조선군을 힘있게 추동하는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자강도인민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고 있다.

준엄한 혁명의 년대기에 불굴의 강경정신이 창조된 력사의 땅에서 진행되는 명성 높은 예술단체들의 공연소식에 집친 수많은 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모여와 공연장소는 번일 성황을 이루고 있다.

도안의 주요공장, 기업소, 협동농장의 로동계급과 농업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을 비롯하여 공연을 본 관람자들 모두가 《사회주의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겨준 공연》, 《애국의 심장에 비약의 불을 달아준 최상의 예술》이라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다.

리인걸 만포시인민위원회 부장은 격정 없는 불수 없는 공연이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터놓았다.

우리 자강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인민

을 위해 일 잘하는 총부, 애국자들도 많다고 온 나라에 내세워주시고 고장이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높은 뜻을 받들어 엄혹하였던 고난의 행군시기 시대정신을 창조한 자강도사람들이 당 제7차대회 결집관철을 위한 투쟁에서도 앞장서 나가기를 바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오늘의 뜻깊은 공연무대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한다.

공연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과 생사 운명을 함께 하며 사회주의붉은기를 지켜온것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따라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이룩하고야말 억척불변의 신념을 더욱 굳게 간직하게 되었다.

김춘해 장계고려악가공공작 부원은 너 성숙창과 남성합창 《장군님 따르는 마음》은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그리움의 노래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노래를 들으니 우리 공장을 찾아

연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관철하는 길에 애국의 땀방울을 아낌 없이 바쳐나갔었다.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진 성간군도 로보수관리대 구봉령가족소년원들이 공연을 본 감흥은 남달랐다.

가족소년원 김옥실은 자기 어머니를 비롯한 구봉령 일가를 만나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무대배경에 모셔질 때 감격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비오나 눈오나 령길을 쫓아 한생을 바쳐온 우리 어머니를 오늘의 태성할머니라고 다정히 불러주시던 어머니장군님의 그 모습이 오늘도 구봉령에 울리는것만 같다.

우리들의 초소인 구봉령은 조국의 북방방에 솟아있어도 당중앙위원회의 프락과 운명의 피출기로 굳건히 이어져 있다.

우리들은 어머니장군님과 맺은 정을 피출처럼 간직하고 이 세상 끝까지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며 그이께서 가시는 앞길에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이 어린 비단필을 퍼놓아가겠다.

김순옥 전천군산업관리소 소장도 자기의 마음속진정을 터치었다.

너성독창과 방창 《달리는 못살아》의 노래와 함께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아끼고 사랑해주신 자강도녀성들의 애국의 모습이 무대의 화면에 펼쳐질 때 그들

의 정신세계에 나를 비추어주었다.

단발머리 애 어린 처니서절부머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한생을 갚고 빛내인 정순실영용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과 만족만을 드리는 요녀, 인민을 위한 좋은 일을 한가지라도 더 찾아하는 인민의 참된 총부이 될 결심을 굳게 간직하였다.

윤호영 2.16강계예술학원 부과장은 시대의 벽찬 승결이 맥박치는 훌륭한 공연을 보았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당의 손길아래 눈부신데 발전하는 주체예술의 면모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새롭고 특색있는 편곡, 배우들의 세련된 예술적형상, 무대효과 등 모든것이 완벽한 공연은 그야말로 황룡경을 이룬 최상의 예술이다.

당의 주체적문예사상을 높은 실력으로 받아들이는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예술인들처럼 우리 학원 학생들을 인민이 사랑하는 명배우들로 훌륭히 키우기 위한 사업에 지혜와 정열을 장그려 바치겠다.

3년분 인민경제계획을 넘넘저 수행한 김정애 9월방직공장 정방장은 당의 품속에서 나날이 꽃피는 자강도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휘황찬란한 내일의 모습이 환희롭게 펼쳐진 것만 같은 공연이었다. 이번 공연에서 받아들인 새로운 힘과 용기를 눈부신 기적창조의 원동력으로 승화시켜 더 많은 찬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겠다고 격정에 넘쳐 말했다.

이들뿐만아니라 공연을 본 관람자들 모두가 강경정신의 창조자들답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강국건설기상을 총정력으로 받들어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자강도를 인민의 만복 넘치는 사회주의락원으로 꾸려갈 애국의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 있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재일동포 조국방문단 경모의 정 표시

만수대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동상을 찾아 20일 박영기 총련 중앙상임위원회 부국장을 단장

으로 하는 재일동포조국방문단 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그들은 조국과 민족의 통일변혁을 위하여 헌신하는 바지사였으며 주체적외교포문동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의 마음담아 위대한수령님들의 동상에 꽃다발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선조들이 이룩한 귀중한 정신적 및 물질적유산들을 계승발전시켜 민족의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입니다.》

민족유산보호조국도의 일꾼들은 여러 단위들과의 긴밀한 령계밑에 단위들의 유구한 력사와 문화를 반영한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적극 찾아내어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왔다. 그리하여 많은 대상들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등록되게 되었다.

22개 대상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

사회적응과 레식 및 로동 생활용품에 해당하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서는 조신식지방양식, 조신식탈건축술, 비단 생산기술과 함께 조신장기, 썰매타기, 풀벌치기가 등록되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미로 특징지어지는 조신식지방양식과 세상에 자랑할만 한 우수한 탈들을 일떠세우는데 널리 리용된 조신식탈건축술은 오랜 력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건축술을 잘 보여주고있으며 아름다운 거꾸로오각인 조신장기와 어린이들의 놀이인 썰매타기 역시 우리 인민의 락천적이고 정서적인 생활기쁨을 전하는 귀중한 유산이다.

이번에 새로 등록된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은 전통의술에 속하는 바랑로법과 혼중로법, 시중호감탕로법들도 있다.

인민의 민족적정체와 아름다운 정신도덕적 풍모를 잘 보여주고

다양할뿐아니라 맛 또한 독특한 것으로 하여 오늘날도 우리 인민들의 식생활을 이체제공을 장려하며 민족적정체와 미를 더해주고 있다.

이외에도 혼민정음장제리와 불이 김선달이야기, 설죽화건설, 백자제조술, 수인목판화기법, 해금제작기술 등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다.

불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가 오랜 세월 사람들속에서 전해져온것은 거기에 광판판배들의 위인과 탐구, 거드름을 폭로와유학이 착취계급을 증오하며 저주해온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반영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 설죽화건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바치는것을 영예로운 일로 여기며 죽을지언정 원수놈들에게 굴하지 않는 우리

평양국제가구 및 전재부문 과학기술전시회 폐막

지난 16일에 개막되었던 평양국제가구 및 전재부문 과학기술전시회 가 폐막되었다.

전시회는 가구 및 전재부문에서 이룩한 성과와 경험을 교환하고 나라들사이의 다방면적인 과학기술교류와 협조를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우리 나라의 천리마전제종합공장, 평양목재공장, 영평가구합영회사, 평양정형기합영회사, 원봉합작회사와 여러 나라의 회사들에서 출품한 제품들이 호평을 받았다.

전시회기간 《착색화강석생산방법》, 《실내건축설계》, 《유리선유강화수지》에 의한 전제용장식물형제조기술》 등의 제목으로 기술토론회가 진행되었다.

폐막식이 20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위원장, 정, 중앙기관, 과학교육기관, 관련단위의 일꾼, 연구사, 교원들과 여러 나라와 지역의 대표단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폐막식에서는 심사결과가 발표되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체들에 상장과 증서가 수여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일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일꾼들은 숭고한 애국편파현신의 각오를 가지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열심투신하여야 하며 스스로 무거운 짐을 맡아도 피로와 애환에서 뒤고도 뒤여야 합니다.》

곡산당에 가면 협동농장들뿐 아니라 많은 단위의 일꾼들과 근로자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백성정신장을 비롯한 곡산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자체공공소의 중업원들이다.

이 단위에서는 지난 5년간 해 몇해전 어느날이었다. 저녁노을이 붉게 물든 미루벌을 바라보며 그런듯이 서있는 사람이 있었다.

백성정신장이었다. 그의 뇌리에 바로 몇시간전에 영농자재문제때문에 내려갔다가 만난 어느 한 농장의 관리일꾼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사라질 줄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년토대 땅을 잘 경작지 못하여 올해 더 거둘수 있는 성과도 거두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1의 소식이라도 더 내지 못하는것이 정말 안타깝다고...

그는 아득히 펼쳐진 미루벌을 유년 토대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미루벌, 불모의 땅 미루벌을 대규모달곡생산기지로 전변시켜 추진 위대한 수령님들의 헌신의 로고과 깃들여있는 귀중한 땅! 순간 정신을 번쩍 채웠다.

영농자재공급이나 하는것으로 말걸진 의무를 다했다고 말

우리도 미루벌의 주인들이다

곡산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자체공공소 일꾼들과 중업원들 많은 일이었다.

사실 소식회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지는 소성과 함께 소식회생산기술이 안받침되어야 한다. 이렇게 품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하여 생산을 정상화하기 힘들었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손으로 계획해야 가야 한다는 생각이 마음은 몹시 무거웠다.

애국심을 실천으로 검증받자

조국을 위한 향심의 선택도 중이었다.

하지만 한번 들어선 길을 순간의 탈선도 없이 끝까지 끝까지 가는것은 더욱 중요하다.

소식회생산목표를 세운 백성정신장은 소식회생산기술을 찾기 위해 군안의 산밭들을 수없이 오르내렸다.

우리와 만난 땀방울을내놓은 장은 그때를 돌이켜보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 우리 조동장지는 미루벌에 정장은 소식회를 내기 위해 걸었다. 커리시분은 많은 소식회생산기술을 찾아 군안의 산이탄산은 다 훑어보았습다.》

신발장이 닳도록 하루에도 높고낮은 산밭을 오르내리기를 그 몇번, 설키식을 때느니라 망치에 찢겨진 손의 상처는 또 그 얼마인지 모른다.

어느날 저녁 집에 들어와 밥상을 마주하였을 때 그의 안해가 감격한 기쁨을 내놓았다.

《매일부터 이 가방을 쓰세요. 그것도 작으면 더 큰것을 만들겠어요.》

안해의 그 마음이 더없이 고

독자의 필지

제가 이렇게 편을 들게 된것은 한 평범한 영예군인을 위해 친혈육의 정을 기울이는 고마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몇해전 여름 어느날 우리 당의 뜨거운 은정속에 훌륭히 임하시는 위성과학자주력지구 건설에 참가한 전우들을 위해 시련한 단물을 마련해가지고 갔을 때였습니다. 그때 저의 모습을 눈여겨보는 한 청년이 있었습다. 그가 바로 국가과학원

친혈육의 정 그대로입니다

주군 합니다.

우리 딸을 위해 기울이는 이들의 마음은 또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저와 우리 가정을 위해 바치는 고마운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어머니로 모시고 사는 우리 조국의 귀중함을 배우로 절감하며 병사시절의 고경심으로 혁명의 뜻을 계속 피워갈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곤 합니다.

평성시 송명동 26인민반 리 홍식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대표단이 떠나갔다

키스네트 부리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김일성김정일기금

평안남도산인사 강은철동무와 그의 안해 역시 우리 가정을 위해 전심을 바치고있습니다.

이들은 저의 치료복과 건강에 좋은 보약재들을 가지고 데없이 찾아와 저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

친애하는 아들들

오늘도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렇게 속으며 헌신하고있다. 이 하루를 조국과 인민을 위해 심장을 바치고있다.

본사기자 전 명 일

